

새빛누리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안과 레지던트
수련병원

새 빛 안 과 병 원

소 식 지

새 빛 누 리

2 0 2 1 여 름 호



새빛안과병원 2년 연속 보건산업 대표 브랜드 선정

수술, 외래환자 진료 실적 등 우수성 인정받아...



우리 병원이 보건신문에서 주최하는 '2021 보건산업 대표 브랜드'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의료부문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한 것입니다. 올해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건국대학교병원 등과 함께 선정되어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보건산업 대표 브랜드'는 의료계를 포함한 보건산업 대표 종합 전문지 보건신문에서 선정 및 시상하는 행사로, 의료기관을 비롯한 보건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기관에게 수여합니다. 보건신문은 1966년 창간된 이래 55년 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만큼,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에서 새빛안과병원을 인정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우리 병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백내장 수술 4,000건 달성, 1만 5천 명이 넘는 외래환자 진료

등의 굵직한 성과에 힘입어 보건산업 대표 브랜드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안과전문병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안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우수한 안과 전문의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개원 이래 지속적인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의료기관으로서 본질은 결국 '환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의료진 영입과 양성, 난치성 중증 안질환에 대한 연구, 첨단 장비와 병원 시설에 대한 투자,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 등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집단 면역 형성의 일원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접종 임해...

우리 병원 임직원들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데 이어, 5월 18일부터 2차 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연일 보도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를 진압하기 위해 집단 면역 형성의 일원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백신 접종에 동참했습니다.

임직원들의 백신 접종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자분들과 밀접 접촉이 많기에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백신 접종에 임했습니다. 박수철 병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생겨 하루빨리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방문자는 방역 수칙을 따라주세요!

병동 면회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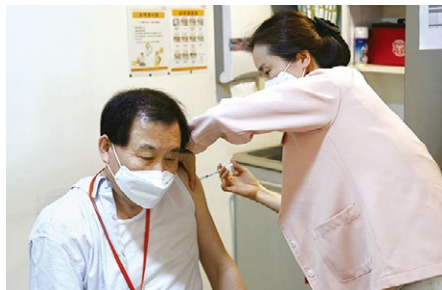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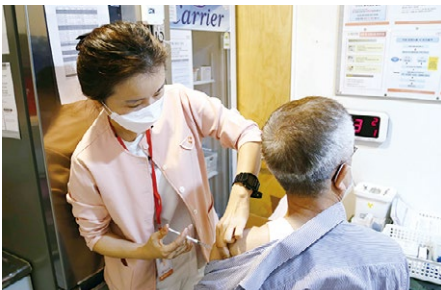
보호자는 1인만

취음·취식 금지

위해서도 철저히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병원 출입 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을 측정하며, 철저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과 병원 내 누름식(버튼식) 시설 항균 필름 부착, 매일 진료 마감 후 병원 전체 소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동 면회를 제한하며 외래진료 시 보호자는 1인만 방문 가능합니다. 원내 취음·취식, 엘리베이터 내 대화도 금지합니다. 병원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음에도 방역 수칙을 잘 따라 주시는 내원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병원은 철저한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
문진표 작성
- 2**
체온측정
- 3**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 4**
누름식 시설 항균 필름 부착
- 5**
진료 마감 후 병원 전체 소독



문자윤, 성윤미 진료과장을 소개합니다



문자윤 진료과장

전문분야: 각막, 백내장, 안구건조증, 콘택트렌즈, 시력교정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전공의
- 서울대학교병원 전안부 임상강사
- 한국건성안학회 회원
- 한국외안부학회 회원
-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회원
- 콘택트렌즈학회 회원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가사처럼 아리따운 의료진 두 명이 올봄 우리 병원에 부임했습니다. 각각 지난 3월과 5월부터 우리 병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문자윤 진료과장(이하 문 과장)과 성윤미 진료과장(이하 성 과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새빛안과병원의 문화에 적응해가며 최상의 진료로 환자분들의 눈 건강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의사가 된 이유, 특히 안과 의사가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문 과장:**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진학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체는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빛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눈’이 제일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 **성 과장:** 사람이 살아가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의사는 가장 귀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곁에서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의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작게는 그들의 몸과 마음에 평안을, 크게는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

한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과 힘들이가 모두 있을 수 있지만 이 일들이 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안과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눈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다양한 질환을 다루고, 좁은 수술 시야에서 섬세한 수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Q. 그렇다면 안과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현재의 전문 진료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 과장:** 저는 전공의 때부터 다른 질환들보다 전안부 질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안부에 생긴 질환으로 시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밝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각막 이식’이 있어서 더욱 전안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성 과장:** 안과 전공의 수련 시에는 대부분의 시

간을 환자들의 '시력, 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제 시력 저하가 가장 불편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외에도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으면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를 가리고 눈가가 짓무르기도 하고, 눈물이 많이 고여 시야가 흐리게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Q. 안과의사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신가요?

● **문 과장** : 기억에 남는 환자는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수술 전 예상보다 수술 후 상태가 만족스러웠던 환자분들입니다.

한 분은 17세 남성 환자로, 외상으로 인해 왼쪽 눈을 다쳐 성형외과에서 눈꺼풀 열상에 대한 치료만 받았다가 뒤늦게 각막 열상과 홍채 끼임이 발견됐습니다. 외상 후 일주일이나 지난 상태로 끼어있는 홍채 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감염 위험성도 높으며, 시력 예후 또한 안 좋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홍채 상태가 많이 나빠지지 않아 수술 중에 많이 살릴 수 있었고, 수술 후 난시도 나빠지지 않아 나안시력 0.7~0.8, 교정시력 1.0이 나왔던 케이스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국내 각막 이식을 시행했던 53세 남자분인데 오래전 외상으로 각막 열상에 대해 일차 봉합술과 망막 수술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수술 전 시행한 검사 결과에서 수술 후 시력 개선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수술 후 시력 호전 가능성 크지 않고 오히려 미용 목적이 더 큰 수술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각막 이식술 후 나안시력 0.2까지 보게 되면서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 **성 과장** :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눈 주변에 검은 점이 커져 내원하셨는데, 조직검사 결과 흑색종이었고 이미 눈꺼풀 및 안구까지 종양이 자라있어 안구적출뿐만 아니라 안와 조직까지 제거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성윤미 진료과장

전문분야 : 성형안과, 소아안과, 백내장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인턴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과 전공의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형안과 전임의
- 유럽성형안과학회(ESOPRS) 회원
-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원
- 대한안과학회 회원

를 설명드리는데조차 조심스러웠고, 이후의 과정도 진행하며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분의 심정에 공감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 아픔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의료인으로서 뿌듯하고 좋았던 기억이 많겠지만, 스트레스도 있으실 텐데요. 스트레스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시나요?

● **문 과장** :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해서 평소에 자주 보는 편입니다. 운동도 좋아해서 시간 될 때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스트레스 풀기에 효과적이어서 6개월 전부터 미술도 배우고 있습니다.

● **성 과장** :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느껴지는 통증을 즐기죠.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Q.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새빛안과병원에서의 계획이나 포부도 말씀해주세요.

● **문 과장** :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는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추천해줄 정도로 믿음이 가는 의사입니다. 저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새빛 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병원의 발전에 조금

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 과장** : 의사의 기본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치료를 잘 해서 환자를 낫게 해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인 자질만큼 중요한 것이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료를 보는 환자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싶습니다.

새빛안과병원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겨 감사하고, 환자분들과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소통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여름이라고 미룰 필요 없어

적기 치료가 중요, 필요하다면 여름이라도 수술 받아야...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며 고민이 깊어진 백내장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물이 흐릿하게 보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지만, 여름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꺼려 불편을 안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내장을 앓고 있는데도 수술을 미룬다면 증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의 가능성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적기에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철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수술 후에도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데다 강한 자외선이 회복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입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은 계절과는 무관한 수술입니다.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법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10mm 정도 절개가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초음파 또는 레이저를 활용해 2~3mm만 절개해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절개 부위가 작아진 덕에 통증과 염증 발생 우려가 적고, 회복 기간도 짧습니다. 또한 수술실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약제가 발달하여 감염과 염증 우려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계절 요인보다는 수술 전후 환자의 주의사항 준수와 지속적인 안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백내장은 한 번 발병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데다, 수술을 받아야만 근본적인 질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수정체가 경화돼 수술 난이도가 높아지고, 수술하지 않고 참다가 안압까지 상승하면 녹내장이 생길 위험성도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차일피일 수술시기를 미루다 보면 수술 후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안과 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

백내장·노안센터
김희영 진료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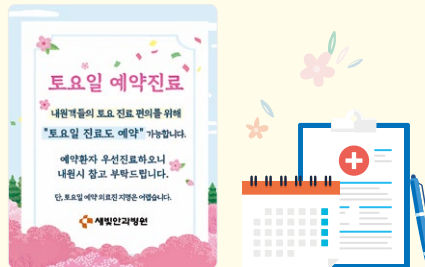
새빛안과병원 새 비전 및 슬로건 선포

우리 병원은 올해 3월 향후 10년 간 병원 경영에 나침반이 될 새 비전을 선포하고,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새 비전은 '2030년 고객만족도, 의료진 선호도, 인지도, 사회공헌도 1위, 나이가 글로벌 1위 안과전문병원으로 도약한다'이며 새 비전과 함께 슬로건으로 'No. 1 in 2030, Global Saevit!'을 내세워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과전문병원이 되겠다는 목표의식을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1위 안과전문병원을 향한 새빛안과병원의 당찬 포부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새빛안과병원-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 의료 협약

지난 5월 4일 우리 병원과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의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향후 2년간 협회 임직원 및 회원들의 눈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이 위치한 고양시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께 의료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일 예약 진료 시행

지난 4월 10일부터 토요일 예약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요일은 예약 진료 없이 당일 선착순 접수를 통해 진료를 해왔습니다. 토요일 예약 진료료가 없을 때에는 아침 일찍부터 병원을 방문해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예약 진료 시행으로 더욱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분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단, 토요일 예약은 의료진 지정은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직원 의료기관인증 교육 진행

우리 병원은 3주기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앞두고 4월 20일~23일까지 인증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할인 상태로 이뤄졌습니다. 의료기관인증은 국가가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공인 받았음을 뜻합니다. 우리 병원은 2014년과 17년 1,2주기 인증을 취득했으며, 3주기 인증도 철저히 준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 속 새빛안과병원

조선일보

- 경기 지역 '안질환 치료'의 메카... 백내장 환자 30%가 찾아온다 2021.04.14



보건신문

- 개원 27년 경기도 유일 안과전문병원 2021.03.29



6개 특화전문센터간 빠른 협진

안과 전 분야 당일 원스톱*토탈케어

01



중복 안과 질환을 단 하루에

안과 모든 질환을
단 하루에
진료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02



실력파 의료진의 안과 질환 완벽 케어

명문 대학병원 교수출신 중심
20명 이상의 의료진이
안과 전 분야
특화 진료를 제공합니다.

03



믿고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 등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받은 병원입니다.

04



최정상 수준의 첨단 의료장비

200여 개의
전문 안과장비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료합니다.

O N E S T O P - T O T A L C A R E



의료법인 세경의료재단

2021년 여름호(통권14호)

발행인·박수철

편집인·안형준

발행·홍보파트

디자인·(주)꽃을담다(02.325.9640)

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5(백석동) 새빛안과병원

Tel·031.900.7700

Fax·031.900.7777



진료예약 및 상담

예약

대표번호 031-900-7700

라식센터 1544-7050

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휴진일 일요일 / 공휴일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오시는 길

